

기고

주 성 호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2019년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란 농업·축협·수협·산림조합 등이 조합장선거를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치르는 선거이다. 2015년에 제1회가 실시되었고, 내년은 두 번째로 전국의 1,300여개의 조합이 참여한다. 보통 조합의 조합원은 2,000명 전후의 소수이고 그 조합장은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조합을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직원들의 인사권을 가진 자이다 보니, 조합장선거에 있어 후보자들은 일단 되고

보자는 식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매수 행위가 일반적이었고, 조합원들은 으레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았으며, 임·직원들은 누가 될지 모르는 차기 조합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눈치 보기 일췌여서 공정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선관위가 조합장선거를 처음으로 위탁받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이다. 그 때는 개별 조합별로 선거일이 다 달랐다. 조합이 1,300여개가 되다보니 조합장선거는 연중 실시되었고 이를 관리하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는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조합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할 조합장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취지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는 돈 선거가 만연한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공직선거에서의 공정성도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였고, 둘째는 조합장선거에 있어 돈 선거를 차단하고 조합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참원 일꾼을 뽑는 선거문화를 실현시켜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잘못 비쳐져 온 조합장선거의 부정적 인식을 일신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13년이 지났다. 어떻게

변했을까? 그동안의 조합장선거를 지켜본 결과, 조합장 선거문화는 괄목상대할 만큼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본다. 그 전의 후보자들은 당연히 조합원 1인당 십 수 만원씩 쥐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조합원들은 이를 받는 것에 아무런 죄의식도 없었으며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흑색·비방선전이 난무했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돈 선거는 안 된다는 의식이 후보자와 조합원들 모두에게 확고히 자리를 잡았고, 조합장선거가 조합 발전 방향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 좋은 현상이다. 우리사회가 발전해가고 있는 것이 다. 내년 조합장선거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잘 이어받고 발전시켰으면 한다. 후보자간에는 조합발전에 도움이 될 정책과 비전이 더 많이 오고 가고, 조합원들은 누가 조합의 참원 일꾼이 될지 비교·판단하여 참 일꾼을 선택하며, 조합은 이러한 조합장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큰 힘을 얻어 더 밝고 투명하며 건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社 說

사회기반시설 안전 점검해야

정부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백석역 온수관 파열, 강릉신 KTX 탈선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안전관리실태와 비상대응 체계에 대한 직접 점검에 나섰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15개 중앙부처,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기본적, 필수적 시설물에 계속 사고가 터지는 것을 우연으로 보면 안 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비해야 한다.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일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지하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시설물이 낡고 영기고 약해져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낮은 안전 수준에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30~40년 된 땅 밑 상하수도관

은 물론 가스관, 통신관, 송유관 등이 언제 시한폭탄으로 변할지 모른다. 이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함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에너지와 철도, 금융, 원자력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주관부처 안전관리대책을 공유하고 사회기반시설에 안전관리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안전대진단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동감찰반도 운영하는 등 이력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요양병원과 쪽방촌 등에 대한 화재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별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바로잡을 게 있으면 매뉴얼부터 짚고 고쳐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주방에서 불이 나면 K급 기억하세요

최근 방송의 대부분이 맛집 탐방, 요리 대결, 요리 레시피 소개 등 체소, 고기, 생선 등으로 요리를 하고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맛을 평가하는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채널을 돌릴 때마다 바로바로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이 들 대부분은 요리 특성상 기름에 튀기고 볶고 상탕수가 기름을 사용한다. 만약 이런 기름을 사용하는 곳에 화재가 발생하여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는 경우 불이 꺼졌다가 다시 발화하는 경우가 많다.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288℃~385℃로, 분말소화제에 식용유 표면의 화염을 제거하여도 기름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상태로 재 발화할 가능성이 높다.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정(2017.6.12.) 하였으며, 개정 이후 신축되는 특

정소방대상물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설치해 오고 있다. K급 소화기는 대상물 발화온도를 30℃정도 낮추는 냉각효과와 방출시 비누가 거품을 형성하여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효과도 갖추고 있어 그 적응성이 우수하다.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소화기구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해야 한다. 주방 25㎡미만인 곳은 1대, 25㎡이상인 곳에는 K급1대 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적은 비용으로 대형화재를 미리 예방하고 스스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주방 내 K급 소화기 비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소화기를 비치하고 절대 내일로 미루어선 안 되겠다. 이선호 / 나주소방서 소방장

보일러 화재 등 유의사항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 각 집집마다 보일러를 가동시키게 된다. 새벽에는 기온이 떨어져 숙면을 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예방과 주의사항을 숙지 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을 수 있다. 화목보일러의 경우 화실 문 개방 후 불씨가 튀어서 나무나 화재물에 옮겨 붙는 경우가 있으며, 지붕의 인화물질에 옮겨 붙는 경우가 있게 된다. 불씨가 튀어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에 유의사항은 화실 정면에 인화성물질을 적재하지 않은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화목보일러 앞에 장차 등을 쌓거나 보관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적재를 해두어야 한다. 또한 지붕의 인화물질이 불을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다. 보일러실의 경우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인화물질이 불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보일러를 가동 시 우리는 항상 눈앞에서 지켜보며 보일러를 사용해야 한다. 잠깐이면 괜찮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된다면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어 대형화재로 번질 수가 있다. 화재를 발견하게 되면 초기에 소화기로 진압을 하며, 진압이 되지 않는다면 빨리 119에 신고하여 화재장소를 알려주며 소방공무원들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며 이러한 대처능력보다 중요한 예방법이다.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면 보일러 사용이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숙지한 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를 바란다. 김태현 / 영광홍농19센터 소방사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化 被 草 木

化 被 草 木

▷ 뜻: 덕화(德化)가 사람이나 짐승 뿐만 아니라 초목(草木)에게까지 미침을 말함.

湖南新聞 (062) 224-5800 (062) 222-5547 (062) 222-5548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브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